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성애는 죄인가?

김희수 (백석대학교 교수)

I. 서론

II. 동성애의 개념정의와 기원에 대한 견해

III. 기독교 전통의 성의 목적 이해에 근거한 동성애 정죄 분석

IV.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구절들에 대한 이해

V. 동성애 반대 논리에 대한 분석과 비판

VI.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변화

VII. 결론

• **ABSTRACT** •

Is Homosexuality a sin? Some say it is and some say it is not. People's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has been changing. Christian tradition has considered homosexuality as a deadly sin. They used the biblical texts as the basis of their condemnation. However, there has been different point of views in interpreting the related biblical texts. Some theologians say that the biblical texts do not condemn homosexuality itself or the natural born homosexuals but focus on either the homosexual behaviors done by the heterosexuals and bisexuals or the homosexual ritual ceremony of the other religions or races. There are many countries(including traditionally Christian countries) which have legalized the homosexual marriage, partnership, or adoption. This means that there are many people and countries that no longer consider homosexuality as a sin or an immoral behavior. This article will deal with the core issues of homosexuality and prove that homosexuality can't be treated as a sin.

Key Words: homosexuality, sin, aids, Augustinus, capitalism, genesis, heterosexuality, purpose of sex, Thomas Aquinas

I. 서론

동성애는 죄인가? 기독교 전통은 결혼한 부부 사이의 직접적인 성교를 통한 아이의 출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성기 사용과 성행위의 목적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성애를 죄악된 행위로 간주하고 정죄하였다. 창세기 1:27-28, 2:24절에 의하면 남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아이를 출산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독신과 불임도 죄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는 독신으로 산 사람들의 예가 나오며 때로는 신에게 전적으로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권장하기까지 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불임이 된 자들과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 불임자는 죄인이 아니고 동성애자는 죄인인가? 유독 동성애자들만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생각인가?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은 예수를 믿을 자격도 교회에 출석할 자격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나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동성애자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동성애가 원죄나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며 성경적인 주장인가? 본 논문은 성의 역할과 동성애에 대한 단죄가 다분히 특정 시기 특정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목적에 의해서 내려진 것임을 밝혀내고 동성애를 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견해를 밝혀내게 될 것이다.

II. 동성애의 개념정의와 기원에 대한 견해

동성애란 유독 동성의 사람을 성의 대상으로 삼는 지속적인 성애심리 현상이다. 이러한 동성애 지향성(homosexual orientation) 이성애 지향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행해질 수도 있는 동성애 행위나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는 독신 동성애자들의 동성애 행위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만 한다.¹⁾

어떤 학자들은 최근의 유전자 연구에 의거하여 동성애자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동성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따라서 부도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²⁾ 생물학적 요인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유전자 구조, 출산 이전 또는 출산 이후의 비정상적 호르몬 분비, 성과 성적 행위에 관련된 여러 조직들의 비정상적 발전 등을 생물학적 요인에 포함시켰다.³⁾ 현대의 유전학자들은 동성애 유전인자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동성애 지향성이 생물학적 요인에만 근거한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⁴⁾ 머니(John Money)는 동성애

1)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eds.,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p.271.

2) 콜린 윌슨, 수잔 타이번,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서울: 연구사, 1998), pp.24, 37-38.

3) Milton Diamond, "Biological Found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in *Human Sexuality in Four Perspectives*, Frank A. Beach,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pp.40-42.

4) Herant A. Katchdourian and Donal T. Lunde, *Fundamentals of Human Sexuality*, 2nd. ed., (New York:

자가 되는 것이 출산 이전의 성향에만 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동성애, 복장도착증(transvestism: 이성의 복장을 하고 성적 만족을 얻는 일), 성전환(transsexualism: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을 전환함), 성심리적 기능 부조화(psychosexual malfunction) 등을 예로 들며 동성애자가 되는 요인은 출산 이후의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논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헤터러(Lawrence J. Hatterer)는 동성애가 성적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⁶⁾ 헤틀링거(Richard Hettlinger)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부 유전적 특징들이 한 사람이 동성애 편향을 가지게 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가족관계와 문화적 영향이 없이는, 이러한 잠재요인들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는 못한다.”⁷⁾

어찌 되었건 간에, 성 지향성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다음 두 가지에 보편적으로 동의한다. 첫째, 기본적인 성적 지향성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기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인 5세에서 7세 사이에 이미 고정화된다. 둘째, 성인의 성적 지향성을 바꾸려는 노력은 특정한 성행위 형태들을 바꿀지는 몰라도 대개 느낌이나 욕구나 그리고 성적 환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⁸⁾

그러나 동성애자가 되는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동성애 자체가 죄인지 또는 비도덕적인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동성애 유전인자를 발견하게 되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에 대한 편견이나 학대를 잠재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동성애 유전인자의 발견이 동성애 자체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답은 제시하지는 못한다. 기원에 대한 질문과 윤리적 질문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⁹⁾ 피터스(Ted Peters)는 “우리가 비록 남성 동성애가 유전인자를 통해 유전된 것임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과학적 사실 자체가 그 사실에 대한 윤리적 해석의 방향을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말한다.¹⁰⁾

Ⅲ. 기독교 전통의 성의 목적 이해에 근거한 동성애 정죄 분석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 27-28에서 보느바와 같이 종족 보존과 번영을 위해 다산을 강조하였다. 성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 역시 출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정욕과 섹스 자체를 타락의 결과로 보았으며, 출산 목적이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5), p.336.

5) John Money, “Human Hermaphroditism,” in *Human Sexuality in Four Perspectives*, Frank A. Beach,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p.80.

6) Lawrence J. Hatterer, “What Makes a Homosexual? condensed from *McCall's* (July, 1971) in *The Readers Digest* (September 1971): pp.60-63.

7) Richard Hettlinger, *Living with Sex* (New York: Seabury, 1966), p.111.

8)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eds.,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p.271.

9) Ken Stone, “Adam, Eve, and the Genome,” in Susan Brooks Thistlethwaite, ed., *Adam, Eve, and the Genome: The Human Genome Project and Theology*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2003), p.117.

10) Ted Peters, *Playing God? Genetic Determinism and Human Freedom*(New York: Routledge, 1997), p.96.

아닌 모든 성행위를 죄악으로 보았다. 그는 결혼한 부부들의 성행위도 출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행해질 때는 죄가 되며 피임도 출산에 위배되므로 죄라고 하였다.¹¹⁾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는 육체적인 합일 그 자체를 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이성간의 성행위는 신이 부여한 자연적 성향이며, 그 행위를 통하여 생식기는 자연적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¹²⁾ 그러므로 그는 출산 목적에 위배되는 정자의 방출(자위행위), 수간, 동성애는 죄로 보았다.¹³⁾

로마 가톨릭 신앙교리성은 동성애가 생명 전달 가능성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을 결여한 행위’인 동시에 ‘내재적으로 병든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¹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앙교리성의 또 다른 서한에서도 출산에 초점을 맞추고 동성애를 정죄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상호간의 성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전달하는(출산) 창조주의 협력자이다. 그러므로 성적 기능의 사용은 혼인관계 안에서만 윤리적으로 선하다. 동성애 행위는 성의 창조목적과 그 풍요성을 무효화시키므로 악한 것이다.¹⁵⁾

그러나 과연 성기의 사용과 성의 목적을 출산에만 두고 인간의 성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성의 의미와 특정 성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특정 집단의 시대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그리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내려졌다.

엥겔스(1820-1864)는 『가정,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¹⁶⁾에서 결혼과 가정이 경제적 생산과 관련된 제도임을 밝혀내었으며, 따라서 출산이 성행위의 자연적 목적이라는 주장 역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밝혀내었다.¹⁷⁾

인류학자 루빈(Gayle Rubin)은 “성에 대한 관심은 그 자신의 내면화된 당파적 이해와 불공정성, 억압의 양상을 띠고 있다. 어떤 일정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 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적 틀들은 인간 행위의 다른 국면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활동의 산물이다. 이러한 제도적 틀들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책략 사이의 갈등으로 가득 차있다.”고 말했다.¹⁸⁾

푸코(Michel Foucault)는 동성애를 발견된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구성된 지식의 범주로 간주하였다.¹⁹⁾ 푸코는 성 지향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제도와 담론이 수행하

11) Augustine, *On Marriage and Concupiscence*, bk. 1, ch. 9. W. Alexander, “Sex and Philosophy in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5(1974), pp.197-208.

12) Thomas Aquinas, “That Not All Sexual Intercourse Is Sinful,” in *Summa Contra Gentiles*, bk. 3, pt. 2, ch. 126.

13) 출산을 목적으로 한 이성간의 성행위라 할지라도 근친상간, 강간, 유괴, 간통, 도박적인 성행위 등은 죄로 보았다.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e*, 2a2ae, q. 154, a. 11, 12.

14) 교황청 신앙교리성, “성윤리에 관한 선언문” 제8항. 1975. 12. 29.

15) 교황청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7항.

16) Friedrich Engels,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Stuttgart, 1884).

17) 콜린 윌슨, 수잔 타이번,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pp.26-28.

18) Gayle S. Rubin,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in Henry Abelove, Michèle Aina Barale, David M. Halperin, eds., *The Lesbian and Gay Studies Rea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3), p.4. 재인용 Tamsin Spargo, 김부용 역, 『푸코와 이반 이론』 (서울: 이제이북스, 2003), p.12.

19) Tamsin Spargo, 김부용 역, 『푸코와 이반 이론』, p.24.

는 결정적 역할을 우선시하였으며 생물학적 기원보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18세기 이후 성은 규제되고 지도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계몽시대에는 신체를 가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지배체제를 개발하고 사회적 규범들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고안해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을 이해하는 공식화된 방식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방식들이 오늘날에도 동성애와 이성애를 규정짓는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세기 의학의 특별한 관심사는 발전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필요에 부합하는 생산적이면서 가임적인 인구(노동력)를 보존하고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들의 자위행위나 동성애적 욕망과 실행은 자본주의 발전과 생식원칙에 위배되는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규정되었다.²⁰⁾ 영국은 1885년에 결혼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늦추는 동시에 남자들 사이의 모든 성행위를 금지하는 형법을 통과시켰다.²¹⁾ 동성애라는 말 자체도 1869년 헝가리 출신 의사인 벤케르트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나치 독일에서는 독일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저해의 방지와 군사적 힘의 약화 방지라는 명목 하에 유대인, 공산주의자, 동성애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1993년 1월 수상으로 취임한 히틀러는 3주 만에 사회주의와 동성애 단체를 와해시켰고, 그 후 최소한 수 만 명의 동성애자들을 집단 학살하였다. 소련에서는 1934년 스탈린의 출산장려책으로 인하여 동성애가 ‘파시스트의 성도착증’으로 범죄시되면서 수천명이 체포 구금되었다.²²⁾

기독교 전통이건 일반 사회적인 전통이건 동성애에 대한 판단은 다분히 주류 기득권층의 정치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좌우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다. 더군다나 오늘날에 와서는 남녀의 직접적인 성교를 통하지 않고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시행되고 있으므로 출산을 이유로 해서 동성애를 정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IV.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구절들에 대한 이해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구절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스톤(Ken Stone)은 성경의 특정한 표현들이나 이야기들이 문화적 산물임을 강조한다. 그는 그러한 내용들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특정한 문화적 가정들과 가치들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형성되어진 배경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히브리 성경은 그들의 교육적 배경 때문에 옛 팔레스타인 대중들 위에 군림하고 문화적 요소들을 독점하고 여론형성을 좌우했던 특정 소수 집단(주로 남성들, 도시거주자들, 체사장 또는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편견이 깊이 스며있다.²⁴⁾

20) Ibid., pp.19-26.

21) 콜린 월슨, 수잔 타이번,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pp.33-34.

22) Ibid., pp.44-45, 김진, 『동성애의 배려윤리적 고찰』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p.40.

23) Ken Stone, "Adam, Eve, and the Genome," p.113.

24) Cf. Carol Meyers, *Discovering Eve: Ancient Israelite Women in Contex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11-13.

소돔과 고모라 얘기 끝에 나오는 창세기 19:30-38절의 암몬족속과 모압족속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두 족속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²⁵⁾ 두 족속을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불결한 족속들로 만든다는 그 두 족속에 대한 자신들의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²⁶⁾ 만일 모압족속이나 암몬족속들에게 자신들의 기원론을 말하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과 사뭇 다른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²⁷⁾

아담과 이브가 겪게 된 고통에 대한 기원론(창 3:16-19)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팔레스틴 사회의 고통스런 삶의 현실(여성이 당하는 출산의 고통, 여성의 예속, 남성의 고통스런 농사일 감당 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²⁸⁾ 이 기원론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과 불평등이 신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성화시킴으로써 그러한 현실을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따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²⁹⁾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성애자들을 정죄해왔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가?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겨우 몇 곳에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 심리적 지향성(psychosexual orientation)이라는 관점에서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형태의 동성애적 행위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넬슨(Nelson)은 성경이 ‘자연스런’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남창이나 이성애 지향성의 사람들에 의한 ‘부자연스런’ 동성애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한다.³⁰⁾

스푹(John Spong)은 소돔과 기브아 주민들의 죄(창세기 19:1-8)가 동성애라기보다는 불친절, 강간미수, 천사들과 동거하려는 욕망이라고 보았다.³¹⁾ 에스겔은 소돔의 죄가 동성애보다는 다른 것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에스겔 16:49-50)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른 색’을 쫓았다는 것에 대한 유다서의 해석도(유다서 1:7) 동성애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1장 6절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떠나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들처럼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쫓아갔다가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천사들의 죄란 창세기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바와 같이 천사들과 인간들의 동거에 대한 언급을 의미하는

25) Ken Stone, “Adam, Eve, and the Genome,” p.123.

26) Randal Bailey, “They’re Nothing but Incestuous Bastards: The Polemical Use of Sex and Sexuality in Hebrew Canon Narratives,” in Fernando F. Segovia and Mary Ann Tolbert, eds., *Reading from This Place. Volume 1.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p.132.

27) Ken Stone, “Adam, Eve, and the Genome,” p.123.

28) Ibid., p.118.

29) cf., Pamela J. Milne, “The Patriarchal Stamp of Scripture: The Implications of Structuralist Analysis for Feminist Hermeneutics,” with a new afterword in Athalya Brenner, ed., *A Feminist Companion to Genesis*(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pp.146-72.

30) J. Nelson, “Homosexuality and the Church: Towards a Sexual Ethics of Love”, *Christianity and Crisis* 37(1977), pp.63-69.

31) John Shelby Spong, *Living in Sin?*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8), pp.139-40.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다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행위를 천사 같은 존재들과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망의 표현으로 보았을 것이다.³²⁾

랜스(Darrell Lance)는 소돔과 기브아 주민들의 행동은 현대의 동성애 행위와는 달리 그 당시 여러 문화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 종속 지위를 상기시키기 위한 항문 침해 습속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³³⁾ 제의로서의 남성 매춘은 주변 종교의 풍요를 비는 의식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결법전에서 남성끼리의 성교를 금하는 율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³⁴⁾

성결법전에서 발견되는 금령들은 이상숭배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바울의 언급들 또한 이상숭배와 관련된 성적 행위들에 대한 레위적 금령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거나 고대 그리스의 남색 또는 동성애 매춘과 같은 습속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다.³⁵⁾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성애자로서 동성애 행위를 한 사람들이나 동성애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동성애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사회의 전반적인 타락상에 대하여 고발하려는 것이다.³⁶⁾ 바울에게 있어서 적절한 성관계의 유일한 모델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창조기사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는 성결법전의 훈령을 따르면서, 이러한 모델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⁷⁾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그리스어 말라코이(malakoi, 남창노릇하는 자)와 아르세노코이타이(arsenokoitai, 남색하는 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나옴)라는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보스웰(John Boswell)은 이 두 단어가 “바울 시대어나 그 이후 수세기 동안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³⁸⁾ 이 단어들은 동성애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자연스런 동성애 행위가 아니라 이성애자들에 의한 다양한 성적 욕구 해소 방법들 중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논리는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V. 동성애 반대 논리에 대한 분석과 비판

코르빈도(John Corvindo)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성애가 자연적이지 않으며 유해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³⁹⁾

-
- 32) Stanley J. Grenz, 남정우 역, 『성윤리학: 기독교적 관점』 (서울: 살림출판사, 2003), p.393.
33) H. Darrell Lance, “The Bible and Homosexuality,” *American Baptist Quarterly* 8/2 (1989): p.143.
34) Letha Scanzoni and Virginia Mollenkott, *Is the Homosexual My Neighbor?*(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8), pp.59-60.
35) 신약성서 본문들에 대한 보다 새로운 주석에 대한 간명한 요약과 관련 문헌은 다음 글을 참고하라. Joseph J. Kotva, Jr., “Scripture, Ethics, and the Local Church: Homosexuality as a Case Study,” *Conrad Grebel Review* 7/1 (Winter 1989): pp.56-57.
36) Richard Hays, “Relations Natural and Unnatural: A Response to John Boswell’s Exegesis of Romans 1,” *Journal of Religious Ethics* (Spring 1986), p.200.
37) 바울이 ‘자연스럽다’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James B. De Young, “The Meaning of ‘Nature’ in Romans 1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ical Proscriptions of Homosexual Behavior,”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1/4 (1988): pp.429-41.
38) John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353.
39) John Corvindo, “Homosexuality: The Nature and Harm Arguments,” in Alan Soble, ed., *The Philosophy of Sex: Contemporary Readings*, 3rd e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7),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비일상적이거나 평범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애자들의 수는 많고 동성애자들의 수는 적으므로 동성애를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수가 적다거나 일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를 자연적이지 않으며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다른 동물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을 비자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물들조차도 동성과 교접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동성애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고로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모든 동물이 반드시 이성간의 교접을 통해서만 번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주장이다.

게이 양이나 레즈비언 갈매기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다.⁴⁰⁾ 미국 아리조나 사막의 채찍꼬리 도마뱀들은 수컷 없이도 새끼를 낳는다. 암컷들끼리 성행위를 하지만 둘 중 하나가 위로 올라가 상대를 자극하면 정자 없이도 수태가 되기 때문이다.⁴¹⁾ 코르빈도는 설사 동물들은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에 근거하여 인간의 동성애가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동물들의 성적 행태를 근거로 해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⁴²⁾

셋째, 신체기관의 본래적 목적을 해치는 것은 비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성기는 출산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동성애로는 출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기관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입은 말하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우표에 침을 바르고, 껌을 씹고, 이성에게 키스하거나 동성에게 키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어떤 특정 행위만을 가리켜서 비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어린이를 성적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근거가 미약하다. 어린이를 성적으로 확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성애 또는 양성애자들이며 대개는 성인 남성이 여아를 성폭행하는 경우들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성폭행을 근거로 하여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 역시 타당성이 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³⁾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가정과 사회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⁴⁴⁾ 동성애 집단 내에 성적 문란, 우울증, 자살, 에이즈 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⁴⁵⁾ 동성애가 유해한 것이요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주장들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에이즈 확산의 주된 이유는 동성애가 아니라 제3세계의 극심한 빈곤, 이성간의 무분별한 성행위(특히 애널 섹스), 수혈,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초기대책 미비 등으

pp.138-145; cf., 김진, 『동성애의 배려윤리적 고찰』, pp.52-62.

40) Simon Levay, *Queer Science* (Cambridge: MIT Press, 1996), chap.10.

41) 최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서울: 효형출판사, 2001), 41쪽 이하.

42) John Corvindo, "Homosexuality: The Nature and Harm Arguments," p.138.

43) Ibid., p.144.

44) The Ramsey Colloquium, "The Homosexual Movement," in *First Things* (March 1994), pp.15-20, 19.

45) Thomas Schmidt, *Straight and Narrow? Compassion and Clarity in the Homosexuality Debat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5), chap.6, "The Price of Love"; John Corvindo, "Homosexuality: The Nature and Harm Arguments," p.141.

로 평가되고 있다. 에이즈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성애자나 양성애자들에게도 감염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이다.

필자가 볼 때, 동성애가 사회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주장 역시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오늘날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더 크고 근본적인 요인은 정치와 경제의 실패, 침략전쟁, 억압과 착취, 빈곤, 가치관의 혼란, 인간관계의 상실 등이지 동성애가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적문란, 우울증 및 자살의 증가 역시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전반적인 현상이지 동성애자들만의 특별한 현상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동성애가 자연적이지 못하고 유해하므로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빈약함을 알 수 있다.

VI. 동성애에 대한 태도의 변화

근년에 와서 서구사회에는 동성애에 대한 인정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확산되고 있다. 1974년 미국정신의학회(AMA)는 동성애가 정신병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동성애자들에 대한 서구 사회의 부당한 인권유린의 사슬을 끊었다. 1975년 미국 연방정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989년에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동성애자들의 파트너십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99년 10월 프랑스는 동성커플간의 결합을 공인하는 시민연대협약(PACS)을 통과시킴으로써 동성커플이 동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년 이상 동거하면 사회보장, 납세, 유산상속, 재산증여 등에서 이성간의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연합(EU)은 유럽권리장전에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동아일보, 2000. 6. 2.)

미국 버몬트주에서는 하워드 딘 주지사가 2000년 4월 동성 부부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였고, 같은 해 7월 1일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최초의 동성커플이 탄생하였다.(CNN 뉴스, 2000. 7. 1.) 영국은 1999년 10월 동성커플간의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영국은 2005년(England, Wales)과 2006년(Scotland)에 각기 동성커플의 입양을 허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7년 4월 현재 버몬트주, 코네티컷주, 뉴저지주가 시민연합을, 캘리포니아주, 메인주와, 하와이주, 워싱턴 DC가 가정적 파트너십을, 메사추세츠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입양도 허용하고 있다. 2007년 4월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은 동성 결혼과 입양을 모두 허용하고 있고 스웨덴은 법적 파트너십과 입양을 허용하고 있으며, 카나다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⁴⁶⁾

이렇듯 동성 커플에게 법적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거나 결혼 자체를 허용하고 입양을 허용하는 것은 동성애를 더 이상 죄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46) http://en.wikipedia.org/wiki/Homosexuality_laws_of_the_world

VII. 결론

동성애는 죄인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영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이다. 영적인 죄는 불신앙과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적인 위치에 서려함과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거짓된 신, 물질, 권력, 민족, 이념, 인간 등)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인 이웃사랑, 정의와 평화와 함께 더불어 사는 생명의 환희가 넘쳐나게 함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이웃(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영적 윤리적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동성애자라고 해서 무조건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동성애자이건 이성애자이건 각자의 성 지향성과는 관계없이 죄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의 볼펜덴 위원회(Wolfenden Committee)는 사회질서나 품위를 침해하거나, 시민을 불쾌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특히 미성년자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착취하거나 타락하게 만들지 않는 한은 어떤 형태의 동성애 행위라도 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⁴⁷⁾

제수이트 신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베섹(Edward Vacek)는 누가복음 12:57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예수의 말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다. 첫째, 동성애적 관계가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과학적 의학적 입증이 없다. 둘째,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과 똑같이 기능할 수 있다. 일하고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모두 동일하다. 셋째, 동성애자들도 진실한 기독교적 영성을 형성할 수 있다. 그들도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의 신앙과 근본적으로 같다. 베세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예로 들면서 어떤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러한 신앙적 삶을 실천한다고 강조한다.⁴⁸⁾

성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건전한 성행위의 기준은 역사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의도에 따라 규정되어왔다. 동성애 자체가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죄라기보다는 특정 시기 특정 집단에 의해서 죄로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학과 의학기술에 의한 다양한 임신 방법, 대리모 출산, 생명복제 등은 성과 가족관계의 전통적인 의미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성의 의미는 더 이상 아이출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은 사랑의 표현과 생의 즐거움을 풍요롭게 해주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하여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 것 역시 비합리적인 것이었다. 사회와 가정의 파탄과 특정 질병의 확산 역시 동성애보다는 정치 경제 등 더 근본적이고 사회 일반적인 요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의 텍스트들 역시 자연스런 동성애 자체를 죄로 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록 죄라고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저자들의 이기적 의도와 문화적 가정들이 스며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전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에 의

47) Wolfenden Committee Report, 1957.

48) Edward C. Vacek, "A Christian Homosexuality?" in Alan Soble, ed., *The Philosophy of Sex: Contemporary Readings*, 3rd e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7), pp.133-4, cf. 김진, 『동성애의 배려윤리적 고찰』, pp.37-38.

한 동성애 행위를(그리고 이성애자들이나 양성애자들에 의한 동성애 행위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한은) 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 다양한 성범죄나 살인죄를 범한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로 올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동성애자들을 이러한 은혜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류와는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남녀 동성애자들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성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에 있어서 주체가 되기보다는 그러한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다.”⁴⁹⁾ 이제 동성애에 관한 윤리적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권한을 과학자들이나 사회의 일부 기득권층이 아닌 동성애자 자신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황청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_____ “성윤리에 관한 선언문”

김진, 『동성애의 배려윤리적 고찰』.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월슨, 콜린 and 타이번, 수잔.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서울: 연구사, 1998.

최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서울: 효형출판사, 2001.

Grenz, Stanley J. 남정우 역, 『성윤리학: 기독교적 관점』. 서울: 살림출판사, 2003.

Augustine, *On Marriage and Concupiscence*.

Alexander, W. “Sex and Philosophy in Augustine,” in *Augustinian Studies* 5 (1974)

Bailey, Randal. “They're Nothing but Incestuous Bastards: The Polemical Use of Sex and Sexuality in Hebrew Canon Narratives,” in Fernando F. Segovia and Tolbert, Mary Ann, eds., *Reading from This Place*. Volume 1.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Boswell, John.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Childress, James F. and Macquarrie, John, eds.,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Corvindo, John. “Homosexuality: The Nature and Harm Arguments,” in Alan Soble, ed., *The Philosophy of Sex: Contemporary Readings*, 3rd e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7.

De Young, James B. “The Meaning of ‘Nature’ in Romans 1 and Its Implications for Biblical Proscriptions of Homosexual Behavior,”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1/4 (1988)

Diamond, Milton. “Biological Found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in *Human Sexuality in Four Perspectives*. Frank A. Beach,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Engels, Friedrich.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Stuttgart, 1884.

Hatterer, Lawrence J. “What Makes a Homosexual?” condensed from *McCall's* (July, 1971) in *The Readers Digest* (September 1971)

Hays, Richard. “Relations Natural and Unnatural: A Response to John Boswell's Exegesis of Romans 1,” *Journal*

49) David M. Halperin, *Saint Foucault: Towards a Gay Hagiograph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42.

- of Religious Ethics* (Spring 1986)
- Hettlinger, Richard. *Living with Sex*. New York: Seabury, 1966.
- Katchdourian, Herant A. and Lunde, Donal T. *Fundamentals of Human Sexuality*,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5.
- Kiely, Bartholomew. “La cura Pastoale delle persone omosessuali: Nota psicologica” *L'Osservatore Romano* (1986)
- Kotva, Joseph J. Jr. “Scripture, Ethics, and the Local Church: Homosexuality as a Case Study,” *Conrad Grebel Review* 7/1 (Winter 1989)
- Lance, H. Darrell. “The Bible and Homosexuality,” *American Baptist Quarterly* 8/2 (1989)
- Levy, Simon. *Queer Science*. Cambridge: MIT Press, 1996.
- Meyers, Carol. *Discovering Eve: Ancient Israelite Women in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Milne, Pamela J. “The Patriarchal Stamp of Scripture: The Implications of Structuralist Analysis for Feminist Hermeneutics,” with a new afterword in Athalya Brenner, ed., *A Feminist Companion to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Money, John. “Human Hermaphroditism,” in *Human Sexuality in Four Perspectives*, Frank A. Beach,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 Nelson, J. “Homosexuality and the Church: Towards a Sexual Ethics of Love”, *Christianity and Crisis* 37(1977)
- Peters, Ted. *Playing God? Genetic Determinism and Human Freedom*. New York: Routledge, 1997.
- Rubin, Gayle S.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in Henry Abelove, Michèle Aina Barale, David M. Halperin, eds., *The Lesbian and Gay Studies Rea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3.
- Scanzoni, Letha and Mollenkott, Virginia. *Is the Homosexual My Neighbor?*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8.
- Schmidt, Thomas. *Straight and Narrow? Compassion and Clarity in the Homosexuality Debat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5.
- Spong, John Shelby. *Living in Sin?*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8.
- Stone, Ken. “Adam, Eve, and the Genome,” in Susan Brooks Thistlethwaite, ed., *Adam, Eve, and the Genome: The Human Genome Project and Theology*.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2003.
- The Ramsey Colloquium, “The Homosexual Movement,” in *First Things* (March 1994)
- Thomas Aquinas. “That Not All Sexual Intercourse Is Sinful,” in *Summa Contra Gentiles*.
_____. *Summa Theologicae*
- Vacek, Edward C. “A Christian Homosexuality?” in Alan Soble, ed., *The Philosophy of Sex: Contemporary Readings*, 3rd e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7.
- Wolfenden Committee Report, 1957.
- http://en.wikipedia.org/wiki/Homosexuality_laws_of_the_world
- 동아일보, 2000. 6. 2.
- CNN 뉴스, 2000. 7. 1.